

공화국의 사회주의 본래와 대공모

오늘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들이 존재하고있으며 매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한 본래와 풍모가 있다. 해당 나라나 사회의 본래와 풍모는 사회를 이루는 매 인간들의 정치사상적, 도덕적준비도와 그 인간들의 결합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본래이며 대공모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집단의 단결된 위력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왔으며 오늘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고 생활하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양해 나가고있다.

집단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 공화국의 참모습이며 공화국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 위력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박속에서

도 삼지연시, 양덕은천문화휴양지와 같이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재부원이 세상에 보란듯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것은 단합된 인민대중의 높은 열의와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공화국의 독특한 모습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장 훌륭히 구현할 수 있게 한다.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스스로 없이는 부르는 이 부름은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으로 되어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는 사실상 남이란 없다.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일심단결의 화원인 공화국에서 남을 위하여는 미덕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고결한 이유로 간주되고있다. 화상을 입고 입힌한 생면부지의 화원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서슴없이 바치고 뜻밖의 재난을 당한 가정을 찾아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아낌없이 안겨주는 사람들, 나이많은 전쟁포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친자식, 친부모가 되어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응당했으므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이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되어

주고 수년간이나 길지 못하는 어린이를 등에 업고 학교에 다니면서 끝끝내 그가 제발로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너교원에 대한 이야기, 갱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원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의 주인공들도 다 공화국의 평범한 인간들이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한 한 로동자처녀에게 고운 얼굴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나긴 세월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인들과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30여년 세월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화안청년단장의 김춘화녀성에 대한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 땅의 천만사람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는 온 사회를 영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혼연일체의 결정체로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인민의 혼연일체, 이것은 집단주의의 최고정화이며 이러한 단결을 가진 사회주의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 화기에 국제사회가 공화국을 가리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나라》, 《일심단결은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는 불매의 강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칭송하는것이다. 백명일

사람이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운명으로 결어하는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게 하는 정신적紐대이다. 태양을 떠나 반발하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공화국의 사회주의대가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새대를 이으며 푸른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지는것은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공화국을 가장 아름답고 화목한 사랑의 화원으로 가꾸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긍지높은 현실이다. 이 땅의 천만사람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는 온 사회를 영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혼연일체의 결정체로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인민의 혼연일체, 이것은 집단주의의 최고정화이며 이러한 단결을 가진 사회주의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 화기에 국제사회가 공화국을 가리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나라》, 《일심단결은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는 불매의 강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칭송하는것이다. 백명일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종합적인 봉사기지



평양의 문수지구에 위치한 대성백화점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봉사기지로 훌륭히 개건된 문수역을 연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어온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평양과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을 찾았다. 얼마전 우리는 종합적이면서 다기능화 봉사기지로 꾸러져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대성백화점을 찾았다. 멀리서부터 독특한 건축형식을 가진 백화점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어들였다. 백화점안에 들어서니 김수영부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인사하신다. 《우리 백화점을 찾는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에 의하여 개건된 우리 백화점을 찾는 인민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한껏 느끼곤 합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백화점 1층에 들어서니 상품진열 방법과 형식이 다양하고 눈맛이 있게 꾸러진 매대들마다에서 손님들이 자기의 기호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 밀치에 담고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들로 꽉 채워놓은것 같다는 우리에게 김수영부인은 개업초기에 비해 훨씬 많은 생산단위들에서 인민들의 다종다양한 상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고, 그중에서도 금급체육인종합스포츠관, 락연식료기공공장, 오일건강음료종합공장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름있는 식료기공장에서 생산한 빵과 파자, 참쌀튀김, 즉석국수, 음료들을 손님들이 특별히 잘 사가고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새형의 신발갈래와 호홉기영양회복제, 말린 송이버

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나물들도 눈길을 끌었다. 대동강구역에서 산다는 리순녀녀성은 퐁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물비누, 세척제들을 사용하면서부터 피부가 맑아지고 세탁과 세척이 잘되는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국내의 소문난 상품들이 여기에 모인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1층에는 주야간매대도 꾸러져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부장 윤시남선생은 이곳에서 음식들을 사가거나 주문하여 봉사받고있는데 보기에 더 먹음직스럽고 그 맛이 아주 좋을뿐 아니라 봉사원들도 친절하여 자주 이곳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백화점의 다른 층들도 돌아보았다. 이곳 백화점의 2층에 있는 매대들에서는 전기제품, 섬유제품, 수공예품, 화장품, 건제품을 비롯한 상품들을 종류에 따라 구획을 지어놓고 봉사해주고있는데 《봄향기》, 《은하수》 화장품

들과 《푸른 하늘》액정TV, 초콜렛제품들과 공예품들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3층의 매대에는 귀금속장식품, 시계, 신발, 가방, 혁띠, 체육기재 등 인기있는 명상품들이 부류별로 진열되어있다. 명상품에 대한 인기가 어떤가 하는 물음에 이곳 봉사원은 결혼식이나 환갑을 비롯한 뜻깊은 날들에 선물할 기념품들을 고르는 손님들이 매대를 찾곤 한다고 말했다. 4층과 5층에 꾸러진 식당에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식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봉사해주고있었는데 부페트형식의 봉사와 음료봉사로 하고있다. 편의시설과 유희오락시설들을 갖추어놓고 다기능화 된 봉사를 진행하고있는 이곳 백화점의 모든 봉사와 경영활동이 수좌화, 정보화되어 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고있다.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생활필수품으로부터 세계적 명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이 그치지 않고도 먹음직스럽고 그 맛이 아주 좋을뿐 아니라 봉사원들도 친절하여 자주 이곳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백화점의 다른 층들도 돌아보았다. 이곳 백화점의 2층에 있는 매대들에서는 전기제품, 섬유제품, 수공예품, 화장품, 건제품을 비롯한 상품들을 종류에 따라 구획을 지어놓고 봉사해주고있는데 《봄향기》, 《은하수》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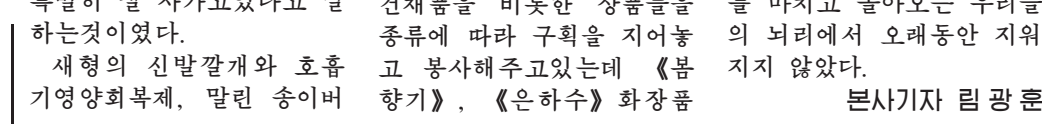
봄이 왔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잠자던 벌레들도 우리소리에 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춘분이 가까와오던 날에 우리는 나무를 심러 산에 올랐다. 아직은 쌀쌀한 겨울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봄이라 하지만 풍겨오는 봄향함에 취해 열성스레 구멍이를 파고있는데 누군가 벌써 씨앗이 나왔다고 하는 소리에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땅결면을 훑고 머리를 빼꼼히 내민 연푸른 새싹. 《이게 무슨 씨앗인가?》 불현듯 단진 이 물음에 누군가는 이 주변엔 밤나무가 많기때문에 밤나무씨앗일것이라느니 또 누군가는 분명 진달래나무씨앗일것라느니 하며 성수가 나서 자기주장들을 내세웠다. 이제야 겨우 반쯤도 못되게 나온 새싹을 두고 밤나무일지, 꽃나무일지 단정키는 어려운 법이다.

《밤나무이든 꽃나무이든 여하튼 좋은 땅에 뿌리내렸으니 아마 푸르실정하게 잘 자랄거야.》 나는 저도 모르게 입속말로 따라외워보았다. 좋은 땅! 그렇다.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야 잘 자란다. 온 나라 인민이 애국의 후더운 마음으로 나무모드를 정히 심고 가꾸는 조국산천이니 이 새싹도 잘 자라 거목으로 되리라. 그러나 이 씨앗이 비옥한 토양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 움튼다면... 분명 새싹의 운명은 달리 될것이다. 똑같은 씨앗이라 해도 어떤 땅에 뿌리내리는가에 따라 거목이 될수 있고 말라나 가지를 펴보기도 전에 시들어버릴수도 있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을 어찌 자연의 리치라고만 하겠는가.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운명

도 다를바없다고 생각한다. 문득 나의 머리속에는 얼마전 TV에서 본 인민자들의 모습이 불췌 떠올랐다. 자기 나라를 떠나 살길 찾아 낯선 이역땅에 와서 저저마다 먼저 배에서 내리겠다고 헤매비는 수난자들의 가

서 인민의 서글픈 행렬에 끼우게 되였는가. 저 어린 생명이 바로 나왔던 나는 지금 어떤 땅에 서있을것인가. 나를 안아 품어주고 보살펴준 조국이 없었다면 분명 나의 운명도 황량한 사막우에 뿌려진 씨앗처럼 불행과 수난을 피할수 없었을것이다. 태어나 지금껏 생의 걸음 걸음에 웃음과 행복만을 얻어주며 나의 인생길을 비쳐주는 고마운 내 조국. 오늘도 이 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자애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

의 노래를 활짝 펼치고 나라의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말그대로 북한은 땅에 뿌리내린 북한은 《씨앗》들이다.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역세게 떠받들어나갈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마음속에서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숭엄한 감정이 북받쳐올랐다. 나도 내 삶을 보살펴준 어머니조국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토록 참되게 살리라고.



유현의

호느낌소리, 그리고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2019년 여름, 2주일간에 걸친 조국방문일정을 끝내고 이제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 방문단을 태우고 평양국제비행장으로 향하는 《조청애국》호 배스안은 온몸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적시고 조국의 안내지도원선생님과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지도원선생님이 배워준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직동으로 2시간이면 쉽게 갈수 있는것을 멀리 중국을 돌아 무려 13시간이나 걸쳐 겨우 우리 나라에 도착했을 때, 지칠대로 지친 우리를 《그리운 조국을 찾아온 학생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며 반갑게 맞아준 지도원선생님이였다. 선생님의 다정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다. 그리고 지도원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느라 불러준 노래에 우리는 매혹되었다. 그날부터 2주일간 노 배스안에서는 언제나 호느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지도원선생님은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조국을 가르쳐주었으며 학생들은 지도원선생님이 배워주는 조국을 온몸으로 느끼고 큰소리로 함께 노래하였다. 노래소리는 이역에서 나서자란 우리 학생들과 조국을 이어주었다. 《일본에 가서도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고 총련의 때, 애국의 대를 이어나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라. 그리고 우리 함께 조국에서 나눈 정을 잊지 말아라. 나는 조국에서 동무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 지도원선생님이 하는 당부들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조국땅위에 메아리쳤다.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원 리경주 《조선신보》에서 전제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높이는것이 자존이라든 남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 존재하는것이 의존이라 하겠다. 전자는 자주와 존엄을, 후자는 예속과 굴종을 의미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크기로 지배사슬을 이루고있는 오늘 세계에서 자존을 지키고 빛나고있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제

자 존의 최강국. 지금 공화국인민은 《우리의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적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정면돌파전, 그것은 자주의 힘, 일심단결의 힘, 자력강화의 힘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공화국특유의 자존방식이다. 자주, 일심단결, 자력강화는 공화국의 전 력사에 관통된 자존의 정신이고 전통이며 원동력이다.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단 한번의 오류와 탈선이 없이 오직 승리의 불멸침로로 따라 질풍노도로 전진해올수 있는것은 바로 그러한 자존의 정신과 전통, 힘이 있었기때문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세계를 둘러보면 대국들의 횡포에

세계가 놀라는데가 바로 그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불허하고 그 어떤 정치지진이나 경제풍랑에도 흔들림없이 자기 제도에 있어서 탈선하지 않는 나라, 세계대전을 치르려고도 남을 군사위협도 자위의 역력력으로 물리치고 자주권과 존엄을 산악처럼 지켜내는 나라, 대세에 끌려가는것이 아니라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가며 강국들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기지의 나라. 19세기말 조선을 탐방한 유럽의 한 작가는 《호미와 황새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조선의 모습》이라고 평한적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공화국은 사실상 위대하고 행성의 절대병기들을 소유한 군력으로 강대하며 마를줄 모르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지력으로 위용당당하다. 지난해 백두산기슭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행성을 진감시켰다. 삼지연, 중평, 양덕... 곳곳에 웅장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바라보는 공화국인민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긍지가 그득하다. 그들의 웃음비끼는 눈물에 희약의 고난속에 창조한 기적과 승리의 만단사연이 다 담겨져있다.

물 한방울에 우주가 비긴다고 한다. 지금 백두산으로, 《백두산대학》으로 달려가는 공화국인민의 발걸음에서 더 밝은 레일에도 향한 공적로와 전진속도, 무한대 힘의 원천도 알수 있다. 정의의 힘으로 온갖 불의를 쳐물리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뜻이 나아가는 담차고 강인하고 거역한 공화국의 모습이다. 화기에 세인은 적대세력들의 반공사대일책들은 한계

에 이르렀지만 조선의 자존은 무한하다고 격찬을 떠드리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인민의 정면돌파전은 추상적이거나 막다른 선택이 아니다. 자존을 잃은 번쩍거리는 번신이나 배부른 노예살이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강국을 위한 공화국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표출이다. 제힘으로 승리하고 제손으로 번영을 가꾸어가는 공화국은 자존의 최강국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재벌전횡을 넘어 외자총량의 부당한 경제체제》를 이루고 《외자수혈》이 옮기면 죽시에 실신, 마비에 들어간다. 《민생》, 《복지》의 간판아래 1%와 99%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가 량분되어있다. 《세계화》의 랑수속에 민족적인것은 《구시대적》 민족적으로 몰락하고 외세의힘을 힘쓸고있어 우수한 민족어가 사멸해가고 외래어, 잠말말이 일상을 차지하고있는것도 비극적현실이다. 모든것이 체모는 있는것 같으나 껍데기뿐이고 제대로 움직이는것 같아도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자주의 불모지, 사대의존의 서식장이다. 해방이 되어 75년, 세기도 바뀌었지만 사대의존이 정치생리로, 사회풍토로 되어있는 자주의 불모지, 존엄의 매창지가 바로 남조선이다. * * 빛과 어둠, 자존과 의존으로 비쳐보는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다. 민족의 밝은 미래는 자주와 존엄에 있다. 반면에 사대의존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자주와 존엄에 살겠는가, 예속과 굴종으로 계속 연명하겠는가. 시대와 력사는 지금 이렇게 묻고있다. 김정혁

자 존 과 의 존

빵과 씨앗

수필

조국땅위에 메아리치네